

War Room IV.

두려운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생각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

1.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조건

[시편 33:6]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사를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위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본질을 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곳에서 나타나는가? 말씀과 성령이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신앙의 출처가 되어야 한다.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다. 나로부터 만들어진 능력이 아니다.

2. 원리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있다. 하나님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이 스스로를 존재하게 하신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존재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즉,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유일신 하나님'이다. 유일신 하나님은 절대 존재를 말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 존재한다.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이것이 시편 33:6절의 원리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입 기운(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절대 진리이다.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했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것은 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예가 바로 바벨탑이다. 결국 내 힘으로 만든 바벨탑의 마지막은 무너짐과 흩어짐이다. 내 힘으로 절대 하늘에 닿을 수 없다. 결국, '내가 만든 힘인가? 아니면 우리로부터 주어진 힘인가?'에 대한 것이다.

3. 기도

[누가복음 18:11-14]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기도에 이 원리를 적용해보자. 예수님은 세리의 진실성 있는 기도와, 바리새인의 위선적 기도를 비교하셨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가?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다. 나를 보는 관점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이 이룬 것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었다. '자기 의'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된 상태를 말한다. 결국 '자기 의'는 내가 만든 힘이다. 자기가 전부이다.

그러나 세리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 여긴다. 죄인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한다.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원리를 적용해 보자.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이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이다. 바리새인의 의는 내가 쌓아 올린 의로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마음이고,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오셔서 세워 주십시오'라는 기도이다.

4. 생각을 이기는 믿음

기도할 때 먼저 선결되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생각'에 대한 정리이다. 그 예가 다니엘의 기도이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일어날 큰 전쟁에 대한)을 알게 되었다. 다니엘도 감당하기에 버거운 엄청난 환상이었다.

[다니엘 10:8-9] 8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 때에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9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다니엘을 볼 수 있다. 힘이 빠져 힘을 쓸 수 없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할 정도였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질 정도였다.

[다니엘 10:16-17] 16 그런데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이가 나의 입술을 어루만졌다. 내가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천사님, 제가 환상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맥이 모두 빠져 버렸습니다. 17 이제 힘이 다 빠져 버리고, 숨도 막힐 지경인데, 천사님의 종인 제가 감히 어떻게 천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 쉽지 않은 기도를 한 다니엘의 기도는 걱정된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고, 미가엘 천사가 세 이레 동안 영적 전쟁하며 마침내 다니엘에게 나타난 것이다.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두렵고 근심이 가득했던 다니엘에게 들렸던 음성은, 또 다른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니다.

[다니엘 10:18-19] 18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19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십시오

‘강건하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가 반복되어 나온다. 그때 다니엘에게 힘이 생겨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다.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두려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웠던 다니엘이 ‘말씀하십시오’ 라고 고백한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다니엘의 두려움이 어떻게 돌파가 되었는가? 다니엘의 노력과 행동인가? 아니다. 다니엘이 만든 힘이 아니다. 금식했음에도 여전히 두렵고, 평안의 생각이 없었다. 다니엘의 돌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위로부터 들린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의 음성이었다.

5.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누구에게 간구하는가? 바로 기도의 대상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된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핵심은 힘의 출처에 대한 이해이다.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생각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다스림이다. 내 생각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니엘처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 종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1) 집중의 싸움

결국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있다.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있을 때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두려움과 근심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그 힘의 근거가 내 의지에 있다면, 이 사람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두려움의 생각을 극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해야 한다.

[예레미야 16:19]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날의 피난처시여~

[시편 18:1-2]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라” 말씀하신다.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가야 한다. 내가 만든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성을 바라보아야 한다.

(2)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 - ‘이겨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1:9-10] 9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1-2]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라. ~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신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게 하신다. 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한다.

6. 생각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다.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생각을 다스리는 성령께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 평상시가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든든히 하라. 생각이 아니다. 생각으로 절대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을 이길 수 없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한 기도! 응답의 기도 두 번째 시즌이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응답받은 줄로 여기고, 말씀을 붙잡고, 생각에 지지 말고, 정말 승리하는 이기는 기도! 믿음의 기도로 응답을 실재가 되게 하라. 강한 기도를 통해 ‘집중’의 훈련을 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기도하자.